

세계 경제 동향

○ 미·이란 양해각서 체결 | '26-6-17, '26-6-18 월스트리트저널

- 6월 17일(현지 시간)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14개 항 양해각서(MOU)에 서명함.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상업선박 60일간 무료 통항·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해제
 - 단, “최종 합의가 아니며 양측 모두 협상 타결 전 철회 가능”이라 명시. 핵 협상·제재 완화·3,000억 달러 재건기금 등 핵심 쟁점은 2단계 협상(최대 60일)으로 이연. 트럼프가 “지키지 않으면 폭격 재개”를 위협하는 등 이행 불확실성 상존
-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로 글로벌 경기 급락 위험은 완화됐으나, 기뢰 제거·유전 재가동 등 공급 정상화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.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졌으며,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성장률을 2.5%로 전망(전쟁 전 2.6%에서 소폭 하향)
 -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기대에 따라 국제 유가(WTI 기준)는 6월 16일 6.8% 급락 후 70달러 대를 유지하며, 전쟁 이전 수준(65달러 대)에 근접함.
 - 에너지 충격의 식품·비료 전가 효과는 이제 시작 단계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나타날 전망. 식품 가격은 에너지 가격 충격 이후 정점에 이르기까지 약 1년 소요 예상
- ❖ 이미 누적된 에너지·비료 가격 충격의 지연 전가에 대비한 지속 모니터링과 농가 지원 점검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○ 5월 생산자물가 8.5%·수입물가 24.8% 상승 | '26-6-16; '26-6-19 한국은행

-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8%·전년동월대비 8.5% 상승. 식료품·에너지이외 근원지수도 전월대비 0.9%·전년동월대비 8.5% 크게 상승함. 석탄·석유제품(전년동월대비 +77.5%)·화학제품(+20.6%)·컴퓨터·전자및광학기기(+20.2%) 등 공산품(+13.3%)이 상승 주도
 - 농산물(전년동월대비 +2.6%, 쌀 +17.4%)·축산물(+10.3%, 쇠고기 +19.2%)을 중심으로 농림수산물 전년동월 대비 4.8% 상승·전월대비 0.8% 하락. 비료·농약(전년동월대비 +4.3%) 등 농업투입재 생산자물가 또한 상승
- 5월 수입물가(원화기준)는 국제유가 하락*으로 전월대비 0.3% 하락·전년동월대비 24.8% 상승. 석탄·석유제품(전년동월대비 +73.1%)·광산품(+42.4%)·1차금속제품(+32.8%)·화학제품(+24.9%) 등을 중심으로 상승
 - *두바이유가(월평균, 달러/bbl): '26년 4월 105.70 → 5월 103.15 (전월대비 -2.4%)
 - 농산물(전년동월대비 +6.1%)·축산물(+16.3%, 쇠고기 +23.9%) 등을 중심으로 농림수산물 전년동월대비 10.1% 상승. 음식료품 전년동월대비 4.1% 상승
 - 원/달러 환율은 6월 5일 1,539.1원까지 상승한 뒤 미·이란 종전 기대 등으로 1,510원대로 하락(6월 15일 1,511.1원). 이후 재상승하여 6월 19일 1527.0원으로 마감. 환율이 1,500원대 높은 수준을 이어감에 따라 수입 농식품·농자재 가격 부담 지속
- ❖ 농가 경영비·식품물가 부담은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수 있음. 축산물·수입육 강세와 수입 농산물·곡물 가격 부담에 대비한 농가 지원과 식품물가 모니터링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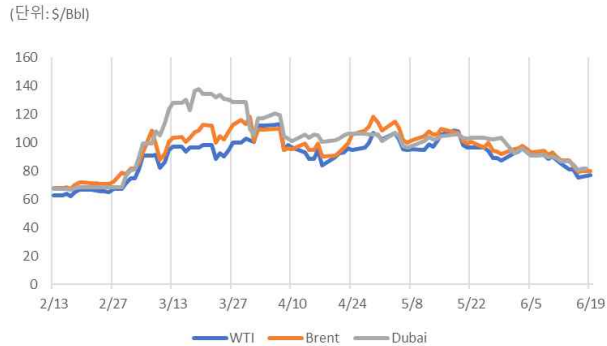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- EU 집행위원회, 비료 가격 급등 대응 농가 지원 방안 발표 | '26-6-12 EU 집행위원회
 - (재정 지원) 총 5억 4,000만 유로의 EU 예산을 조성하여 지원, 회원국은 EU 배정액의 최대 2배를 회원국 예산으로 추가하여 지원 가능(총 지원 규모는 약 15억 유로에 이를 수 있음)
 - (공동농업정책 CAP 개정) 농업 분야 긴급 유동성 지원 제도 신설, 회원국의 농가 직불금 조기 지급 허용, 회원국이 '27년 직불금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 부여
 - 이번 조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'26년 7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, EU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비료 생산 역량 강화 및 수입 의존도 저감을 위한 '비료 행동계획(Fertiliser Action Plan)'을 병행 추진 중
 - ❖ 이번 조치가 EU의 수요를 지지하여 세계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, 국제 수급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
- 미국, 5월 식품 CPI 전년 동월 대비 3.1% 상승 | '26-6-10 미국 노동통계국; '26-6-12 글로벌이코노믹
 - 미국·이란 전쟁으로 고조된 지정학적 위기에 더해 관세 조치와 가뭄이 겹치면서 미국 농산물 가격 급등
 - (육류) 전년 동월 대비 7.6% 상승; 쇠고기(+12.9%), 돼지고기(+2.6%) 등 상승
 - (신선 과일 및 채소) 전년 동월 대비 6.7% 상승; 사과(+5.6%), 양상추(+24.9%), 토마토(+32.0%) 등 상승
 - ❖ 미국 식품 인플레이션과 교환율 기조가 맞물려 국내 수입 단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대응 방안 점검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- 농식품부,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점검 | '26-6-11 농림축산식품부
 - '26년 6월 11일 농식품부는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, 농업인·지방정부·농지 조사원과 간담회를 개최
 -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·도, 227개 시·군·구, 4,273개 읍·면·동에서 일제히 시행 중
 - (기본조사) '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으로 행정정보·항공사진 기반 기초 정보 확인 및 심층조사 대상 분류
 - 읍·면·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,519명 권역별 교육 완료,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교육 진행 중
 - (임대차 정상화)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(5.18.~7.31.)* 운영 중, 현재까지 농지대장 신규 등재 임차 농지는 전년 동기 대비 46% 증가, 농지은행 서면 임대차 계약은 61% 증가
 - (임대차 계약 신규 등재, 5.18.~6.2.) '25년 11,502건 → '26년 16,797건
 - (농지은행 신규 계약 체결, 5.18.~6.9.) '25년 6,861건 → '26년 11,068건
 - * 기간 내 구두 임대차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전환하고 관할 읍·면에 신고 또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 유도
 - (심층조사 준비)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·논산시가 농지(각각 1,167개·400개)를 선별해 시범조사(8~12월) 시행
 - 한국농촌경제연구원·충남연구원이 시범조사 결과를 분석 → 심층조사 가이드라인 확정 예정
 -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전역과 도서·산간 등 현장 방문 어려운 지역에 드론 촬영 지원 예정
 - ❖ 전수조사 회피를 위한 지주의 일방적 임대차 종료 등 부작용을 방지하면서, 실경작 임차농 피해 최소화와 경자유전 원칙 확보 간 균형 필요

■ '26년 2월~6월 국제유가 추이 ■



■ '26년 2월~6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추이 ■



■ '26년 2월~6월 원/달러 환율 추이 ■



■ '24년~'26년 5월 미국 식품 물가지수 추이 ■

